# 35일차

양치기 사용법

## 매일 매일 꾸준히!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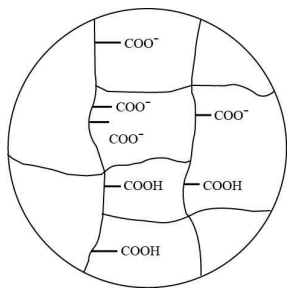
-공자

# 양to the치기 35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평소에 물을 바닥에 ⓐ엎지르면 화장지로 닦아 내지만 닦아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장지로도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흡수성 수지의 구조]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망상 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과 물을 멀리하는 성질인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와 같이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한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더 높은 작용기를 사용할 경우 물뿐만 아니라 염도가 있는 액체에도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내게 된다.

* 중합: 단위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큰 분자량의 화합물로 되는 일. ≒중합 반응.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2.*** 윗글을 발표 수업의 원고라 할 때, 발표 수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제목: 고흡수성 수지에 대하여

○ 대상: 3학년 ○반 학생들
○ 발표 내용 및 방법
- 시각 자료를 통해 ㉠의 구조를 보여준다. ····· ①
-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 ②
- ㉠이 ㉡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③
- 사례를 들어 ㉠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 ····· ④
- ㉠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 ⑤

***3.***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밑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4.*** <보기>는 ⓐ와 관련된 설명이다. 사례로 든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 관계'가 <u>아닌</u> 것은?

<보 기>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더라도 둘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닐 때, 이 두 단어를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의 '엎지르면'은 '쏟으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① 철수는 신호를 (<u>보았다</u>/<u>지켰다</u>).
② 영희는 철길을 (<u>넘었다</u>/<u>건넜다</u>).
③ 형이 나에게 사과를 (<u>주었다</u>/<u>건넸다</u>).
④ 나는 어젯밤에 전구를 (<u>갈았다</u>/<u>바꿨다</u>).
⑤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u>먹었다</u>/<u>마셨다</u>).

# 양to the치기 35일차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며, 공경히 책을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순한 생각으로 익숙히 읽고 깊게 생각하여 깊은 의취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본받지 않아서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을 읽어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그것을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학』 및 『혹문』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하나하나 참으로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의 오서와 오경을 돌려가며 익숙히 읽음에, 이해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하고,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책인 『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語類) 및 기타 성리설 같은 것을, 마땅히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고금을 통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해서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이라면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로 책을 읽음에,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서 관통해서 의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조급하게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

***5.***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6.***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종로를 지나다가 박문서관에 들러 잡지를 보고 있었다. 사 볼 밑천이 없으니까 책방에 가서 이렇게 공짜로 보기가 일쑤다. 조그만 책방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는 담박 쫓겨날 것이지마는 큰 데는 사람이 우굴우굴하여 눈에 덜 뜨인다. 옆에 섰던 중학생 두 놈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얘기를 한다.

"얘 이 책이 어때?"

힐끗 곁눈으로 보니 그 '化學의 徹底的硏究(화학의 철저적 연구)'라는 책이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책이다. 하물며 내가 경앙하여 마지않는 김가성 교수의 저서임에랴! 먹는 것 없이 나는 그 책이 좋다는 평이 내리고 이어서 두말없이 사 가기를 원했다. 원했을 뿐더러 조바심까지 났다.

그런데 이놈의 대답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틀렸어, 왜말루 쓴 그…… 무슨 책이더라?…… 하여튼 무슨 화학 연구야. 꼭 그대룬 거 머. 그래두 볼라거든 내 걸 갖다 봐."

적어도 신문에까지 난 사계의 권위자가 쓴 책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따위 모욕적 언사를 감히 하는 학생놈이 아니꼽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나 같은 것이 무어라고 하자니 알아야 핀잔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노라니까 행하고 내던지고 나가 버렸다. 자세히 보니 그 책뿐 아니라 옆에는 '金可成

著(김가성 저)'가 세 가지나 더 있다. 꼬마 점원이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책을 바로잡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하고 나와 버렸다.

바로 추석날이다. 신문사에 볼일이 있어 들렀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기자요 두 사람은 손님이었다.

"가성이란 놈, 죽일 놈이야. 지난 초열흘날 결혼했다는데 청첩장 하나 없잖아. 그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두 아무 말 없구, 관호한테 물으니 동창이라고 부른 건 두민이밖에 없대."

"두민인 의살해서 돈냥 벌었겠다, 그럴 법허지 뭐야."

"고거 큰일났어. 뻔질뻔질 돌아만 댕기구…… 게다가 제깐엔 큰 권위자루 자처한다지."

"흥, 왜놈덕을 단단히 봤지,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야."

"일종의 새치기지."

"새치기의 권위잔가 하하……."

"㉠새치길수록 껍데기는 점잖구 한다는 소리는 크거든."

"그 무슨 책인가 한 권 내구 꽤 벌었다지, 더 점잖아지겠군."

모두들 가성의 진짜 동창인 모양이다.

—가성이가 그럴 리 있나? 그 일람척기하던 가성이가, 다른 가성이겠지.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김가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소이연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싶었으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말주변까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하였다.

새파란 청춘에 벌써 학계의 권위자가 되었으니 그의 앞날은 어쩌면 아인슈타인쯤 될는지도 모른다. 못되어도 일본의 유가와(湯川) 따위는 어림도 없다고 은근히 기대하고 혼자 좋아서 어깨를 으쓱해 왔는데 그럴 리가 있나? 다른 가성이겠지.

하루는 옆집 문간방에서 자취하는 S대학생이 도끼 빌리러 왔기에,

"김가성 교수님 잘 계셔요?"

하고 물었더니,

"네?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나는 그가 어려서 일람척기하는 신동이었던 것과 제국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깊이 연구한 학자요 권위자니 크게 이루는 바가 있으리라고 자랑삼아 선전삼아 퍼부었다.

"글쎄요…… 뜬소문에는 다섯 가지 위원을 겸하고 있다니까 그런지는 몰라두…… 참 요새는 또 어느 무역회사 중역이 됐다나 부던데요."

학생의 달갑지 않은 대답과는 달리 나는 여기서 실로 삼탄(三嘆)하였다. 교수 자리는 자리대로 차지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행세는 행세대로 하고—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푸르다더니 과연 그른 말이 아니다.

"잘 살구 출세하구 더 바랄 게 무에 있어요, 과연 모두들 기대하던 대루 됐군."

내가 이렇게 응수하니,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말미를 떼는가 했더니 멍하니 건너편 산꼭대기를 바라보다가 일어서 도끼를 쥐고 나가 버렸다. 나 같은 신문배달 무식쟁이를 상대로 얘기해 보았자 얘기가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별놈이 별소리를 다해도 내가 경애하는 김가성 교수는 일인십역이라도 능히 감당할 천재요, 그 지식으로 말하면 고금과 동서를 전부는 몰라도 반쯤은 통했으리라 믿는 까닭에 그에게 대한 경애나 신뢰가 털끝만치라도 동요할 리 없다. 그는 단연 거리에 굴러다니는 어중이떠중이와는 유가 다르다.

그 후 나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지금쯤은 직함도 더 늘고 저서도 부쩍 많아져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으리라.

김가성론을 마친다. 이로써 내가 김가성 교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나도 조금 잘나질까 남몰래 기대하고 있다. 말꼬리에 붙어서 천 리를 가려는 파리의 심사라고 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조상의 그 알뜰한 전통을 낸들 잊을까보냐.

— 김성한, 「김가성론」 —

*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

**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학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중심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성격 변화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④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서술하여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⑤ 삽화적 사건을 나열하며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8.**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3점]

① '나'의 어수룩함에 대비되어 '김가성'의 속물성이 부각된다.
② '김가성'은 '나'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세상에 알린다.
③ '김가성'에 대한 '나'와 타인의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④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을 통해 '김가성'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난다.
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김가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9.**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 분야만 파고드는 열정이 필요하다.
②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③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④ 내적 성숙과 함께 외적 품위도 갖추어야 한다.
⑤ 학식이 높은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

***1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특정 소재에 주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11.***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1연에서 화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럼, 2연부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① 2연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② 3연에서 돌담에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③ 4연에서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지속적임을 의미합니다.
④ 5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해 '눈물'지으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⑤ 6연, 7연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화자를 유년 시절의 시간과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② ㉡은 ㉠에 의해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롭던 시절을 환기한다.
③ ㉢은 ㉣과 대비되어 현대 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④ ㉣은 화자가 소중한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⑤ ㉣은 ㉡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엄마 인희는 50대의 가정주부이다. 남편은 월급 의사이고,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이며, 아들 정수는 삼수생이며 딸 연수는 직장인이다.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그녀는 오줌소태 증세로 병원을 찾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온다. 수술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되기만 하자,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다가 이내 포기한다.

S# 51. 화장실 안

엄마, 할머니(변기 위에 앉아 있고)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엄마** (할머니 눈을 보며, 맘 아픈 걸 참고) 좋아요?

**할머니** …….

**엄마**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엄마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엄마 맘을 알 것 같다.)

**엄마**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두 없구,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닌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젠 기억 하나두 안 나지? [A]

**연수**(E)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밖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엄마**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맘 알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걸 참고) …….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며 울고) 아이고, 어머니…….

S# 67. 차 안

**엄마**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엄마** 한 번만 더 불러 봐. [B]

**정수** (목이 메어) 엄……마.

**엄마** (눈가가 그렁해)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두,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두…… 니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이고)

**엄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 주고) 이거, 니 마누라 줘.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엄마,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엄마** 당신은…… 나 없이두 괜찮지?

**정철** (보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엄마**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애?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C]

**엄마**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엄마**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할려고 넥타이 맬 때.

**엄마** (안타까운 맘. 보며)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D]

**엄마** (눈물이 그렁해, 괜히 옷섶만 만지며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엄마를 안고, 눈물 흘리고)

**엄마**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엄마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정철** 고마웠다.

S# 74.

1. 정원에서 돌 고르는 행복한 얼굴을 한 엄마와 정철.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엄마.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엄마와 정철.
4. 거실 소파에서 엄마,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엄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E]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엄마는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은 물기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안고 있다.

**정철** (엄마의 죽음을 느낀다, 엄마를 보지 않고) 여보.

**엄마** …….

**정철** 여보…….

**엄마** …….

**정철** 인희야.

그러나 엄마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우는데, 눈물 뚝 떨어져 엄마의 뺨 위로 흐른다.

엄마,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진다.

–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조명이 인물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소도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③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④ 효과음을 삽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이 구성되고 있다.

**14.** 윗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장면에 맞는 촬영 방법과 효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A]는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안타까움 등의 복합적 심정이 담긴 표정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② [B]는 애써 웃으려는 '엄마'와 슬픔을 참는 '정수'의 모습을 번갈아 카메라로 잡아 이별을 앞둔 모자간의 아픈 심리를 드러내면 좋겠어.
③ [C]는 '정철'에 대한 '엄마'의 바람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여 '정철'이 '엄마'의 부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④ [D]는 가족들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듯 삽입하여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정철'의 심정이 부각되도록 하면 좋겠어.
⑤ [E]는 '엄마'와 '정철'의 일상적 장면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이별을 맞는 두 사람의 애틋함을 보여주면 좋겠어.

**15.** <보기>를 'S# 76'으로 바꿨을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침실 가득 눈부신 햇살이 밀려들었다. 아침이었다. 햇살은 마치 무슨 축복인 양 쏟아져 들어와 잠든 인희 씨의 하얀 얼굴을 비춰 주고 있었다. 정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조용히 아내를 불러 보았다.

"여보."

아내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에서는 이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인희야!"

정철은 오열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서히 몸을 굽혀 식어 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그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어느 결에 고인 슬픔인지, 깊이 잠든 인희 씨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었다.

① '정철'의 심리와 조응하는 배경으로 교체한다.
② '정철'과 '인희'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③ 죽음을 맞는 '인희'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④ 삶에 미련을 갖는 '인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⑤ '인희'를 보내는 '정철'의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여 보여준다.

# 해설

④④②①④
②⑤②②②
①⑤⑤③⑤

☐ 출전: 임두언, <고흡수성 수지>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을 보면 고흡수성 수지는 그물 모양의 3차원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이 글은 고흡수성 수지의 필요성, 구조, 특성, 망상 구조의 형성 과정, 고흡수성 수지가 망상 구조를 지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흡수성 수지의 활용 분야를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친수성 도료를 칠하게 되면, 도료가 물과 반응하여 녹이 슬거나 도료 자체가 물을 흡수하여 배의 운항에 지장을 준다. 선박의 도료는 소수성 작용기를 이용해서 물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 **[출제의도] 어휘의 관계 파악하기**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에서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이고 '철수는 신호를 지켰다'에서 '지키다'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뜻이다. '보다/지키다'는 '맡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만 유의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출전: 이이, <격몽요결>

5.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의 필자는 실용 도서와 대하소설 등 회사 생활에 유용한 책을 찾아 읽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6. **[출제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①은 3문단의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은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통해, ③은 3문단에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것을 통해, ④는 4문단에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깨달아서'를 통해, ⑤는 1문단에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독서 전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②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출전: 김성한, <김가성론>

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가성'의 표절 행위, 위선적인 모습, 속물적인 모습을 삽화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러한 '김가성'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서사적 흐름에 따른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나'는 '김가성'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나'의 어수룩함 때문에 '김가성'의 속물성이 더욱 부각된다(①).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에 의해 '김가성'의 실체가 드러나지만(④) '나'는 이들과 달리 김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③).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⑤). '나'를 통해 '김가성'의 숨겨진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②)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9.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의 의도 추리하기**
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인 '김가성'이 득세한 상황을 비웃는 것으로, 든 것은 없으면서 겉으로 점잖은 행세를 하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음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윤동주, <길>
(나) 이수익, <방울소리>

1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부끄러움과 의지를, (나)는 '방울소리'의 소재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1.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하기**
화자는 ㉠을 매개로 소박하고 평화롭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을 생각한다. 그리고 ㉡과 함께 '옥분이'와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게 된다. 현재 화자는 ㉢으로 상징된 떠들썩한 문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을 들으며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과거를 환기하는 것이지,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시나리오 ****

☐ 출전: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엄마'는 S# 51에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고, S# 67에서 '정수'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으며, S# 73에서 '정철'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엄마'와 가족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4. **[출제의도] 영화화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C]에서 '엄마'는 자신이 부재하더라도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며 '정철'과 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화면 밖의 해설로 들려주는 내레이션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5. **[출제의도] 갈래를 바꾸어 표현하기**
<보기>에서 '정철'이 오열하면서 아내의 몸을 껴안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달리, 'S# 76'에서는 '정철'이 이를 앙다물고 우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